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이은주* · 정익중**

초 록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개념이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아개념은 자아의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구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비행관련 자아개념(일탈적 자아개념)으로 한정하여 비행행동과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에서 고2까지 4년 종단자료에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비행행동과 일탈적 자아개념은 상호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탈적 자아개념은 1년 후의 비행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비행경험은 1년 후의 일탈적 자아개념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행경험이 일탈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가 그 역의 효과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청소년비행 예방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청소년 비행, 일탈적 자아개념, 상호적 인과관계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I. 서 론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아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또래집단 선택, 비행, 심리적 안녕, 학업성취, 집단괴롭힘 등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자아개념이 유관함을 보여주고 있다(이은주, 2004; 정익중, 2006; Donnellan et al., 2005; Sutherland & Shepard, 2002; Webster & Kirkpatrick, 2006). 그 중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여전히 모호하다.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지만,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감이 비행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도 많다(e.g.,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이와 반대로 자아개념과 비행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e.g., Rigby & Slee, 1993; Salmivalli et al., 1999).

자아개념 연구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e.g., Marsh & Craven, 2006; Scheff & Fearon, 2004)도 있지만, 여전히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비일관적이고 모호한 이유는 자아개념의 불명확성,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의 복잡성, 분석방법의 제한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Matsueda(1992)는 자아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상징적 상호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 기초하여 자아개념을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of self)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 역시 상징적 상호주의에 기초하였지만, 개인의 자아개념이 타인의 반영된 평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Gecas & Schwalbe, 1983)에 주목하였다. Maruna 등(2004)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타인의 실제 평가와 그에 대한 개인의 반영된 평가뿐만 아니라 인과적 주체로서의 자아(self as a causal agent)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의 자신의 자아개념에 견주어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수용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 비행과 반영된 평가로서의 자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자기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생님은 나를 문제아라고 본다고 느끼지만 정작 자신은 문제아라고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부모님이 나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영된 평가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자아개념을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구인으로 정의하였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두 가지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평가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공식 낙인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e.g., Hirschfield, 2008; Matsueda, 1992)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를 통합하여 자아개념을 구성함으로써 비공식적 낙인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대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전반적 자아개념 및 특정 영역에 한정된(domain-specific) 자아개념의 적용에 따라 (e.g., Kirkpatrick et al., 2002; Valentine et al., 2004), 또는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의 적용에 따라 (e.g., Owens, 1994),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특정 영역에 한정된 자아개념을 적용했을 때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매우 잘 예측한 반면 (Marsh & Craven, 2006), 전반적 자아개념을 적용했을 때 자아개념은 비행과 미미한 수준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Kirkpatrick et al.,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행에 한정된 자아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한정된 자아개념을 일탈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비행 행동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일탈적 자아개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아개념은 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사회적 영향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Kaplan, 1986; Rosenberg et al., 1989). 그렇다면 자아개념은 비행행동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비행행동의 원인인가 혹은 결과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채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동원, 2004; Hubbard, 2006). 특히 국내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만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정익중, 2006).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상호적 인과관계로 상정한 연구에서도 횡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거나 제한된 종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아개념과 비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비록 일부 연구자들(e.g., 정익중, 2006; Mason, 2001)이 비행과 자아개념의 상호적 영향관계에 대해 경험적 증거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변인이 상대 변인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의 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탈적 자아개념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가?
2.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가?
3.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탈적 자아개념의 원인적 효과와 결과적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개념: 자아의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of self)로 충분한가?

자아개념은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 그리고 태도를 조직하는 하나의 도식(schema)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도식은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과의 상호적 관계로부터 생긴다(Burke, 2006; Stryker & Serpe, 1994). 즉 누구와 어울리고(by association), 무엇을 하며(by activity),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듣는가(by aurally)를 통해 발달한다(Searcy, 2007).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일단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이것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경험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의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of self)가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의 기초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Jaret et al., 2005).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란 판단 후에 자신을 규정하는 데, 이 과정이 바

로 자아의 반영된 평가라는 개념이다(Matsueda, 1992).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러한 타인의 반응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Chubb et al., 1997).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과정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 속에서 자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Felson(1985)에 의하면, 반영된 평가는 자기평가의 원인이며, 타인의 실제 평가의 결과이다(타인의 실제평가→반영된 평가→자기평가). 그런데 Felson(1985)은 반영된 평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Matsueda(1992)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의 반영된 평가이며, 따라서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영된 평가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Matsueda(1992)는 반영된 평가가 이후 비행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과모형을 설정하면서 자기평가는 제외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의 실제 평가에 선택적 지각을 함으로써 반영된 평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의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self-appraisal)는 반드시 일치한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Swann의 자기확증이론(self-verification theory)에 의하면, 정체감 교섭과정(identity negotiation process)을 통해 개인은 자기평가와 반영된 평가의 간격을 줄여 나간다. 이 과정은 자기평가와 일관된 타인평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자기확증(self-verification)과 상대방의 평가에 따라 자기평가가 영향을 받는 행동적 확증(behavioral confirmation)의 두 가지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체감 교섭과정은 개인이 유의미한 타자의 반영된 평가를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자아개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의 반영된 평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아개념을 유출해 내는, 환경 속의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Maruna et al., 2004). 이것은 자아개념이 타인에 대한 반응 뿐만 아니라 인과적 주체로서의 자아(self as a causal agent)의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Gecas & Schwalbe, 1983).

물론 유의미한 타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지각은 자신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가의 반영이라는 주장(Felson 1985; Kinch, 1963)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타인의 평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선택적 수용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라는 점에 기초해 볼 때 자아개념을 단지 반영된 평가로 보는 것은 자아개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의 반영된 평가와 자기평가를 포함하는 구인으로 자아개념을 정의하였다.

2. 자아개념의 다차원성: 왜 일탈적 자아개념인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반적 자아개념은 비행을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Baumeister et al., 2003; Kirkpatrick et al., 2002; Mason, 2001; Rosenberg et al., 1995).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개념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독특한 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은 다양하다(이동원, 2005; Kirkpatrick & Ellis, 2001). 예컨대 이은주(2000)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을 성취자아와 사회자아로 구분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취자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낮은 반면, 사회자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화와 김정연(2000)의 경우, 비행과 가정적 자아는 상호적 관계에 있었지만, 외모 및 신체적 능력 관련 자아는 비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에 따라 비행과의 관계가 부적일수도 있고 정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전반적 자아개념의 정도를 나타내게 되면, 전반적 자아개념 점수는 각각 반대의 효과를 영(零)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Kirkpatrick et al., 2002).

최근에 ‘자아개념은 과연 중요한가?’라는 연구에서 Swann 등(2007)은 특정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정 예측요인이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예측요인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어 능력을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전반적 자아개념 보다는 영어 유능감과 같은 구체적 자아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행에 한정된 자아개념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

행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개념을 비행관련 자아개념, 즉 일탈적 자아개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개념과 비행의 상호적 인과 관계

자아개념과 비행에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비행행동의 원인으로만 간주함으로써 비행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자아개념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한 제한점을 안고 있다(e.g., 이동원, 2004; Hubbard, 2006). 따라서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적 영향관계에서 더 나아가 상호적 인과관계의 검증을 통해 비행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의 상호적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자아강화 이론(self-enhancement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아강화 이론(Kaplan, 1980)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피하려는 기본 욕구의 영향을 받는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비행이 전통적인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생기는 자아존중감 저하에 대한 적응적 또는 방어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행행동은 이후 자아존중감의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Kaplan의 자아강화 이론을 검증하였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Owens(1994)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비행의 자아존중감 증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Mason(2001)은 자아존중감이 이후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비행 역시 이후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자아강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와 반대로 Jang과 Thornberry (1998)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이후 비행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은 자아존중감의 증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가설과 정반대로 자아손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자아강화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Kaplan의 자아강화이론은 비행과 자아개념의 상호적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도 비행과 자아개념의 상호적 영향관계를 상정하였지만, 자아

강화 이론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다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한정된 일탈적 자아개념을 다룬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Owens(1994)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측면(self-worth)과 부정적인 측면(self-deprecation)으로 구분해서 적용하였는데, 이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비행감소 효과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비행증가 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Owens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역시 전반적 자아개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일탈적 자아개념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상호적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일탈적 자아개념은 이후의 비행행동에 대해 동기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확증이론(Swann, 1983, 1987)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확증적 피드백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자아개념에 일치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기표현 방법을 사용하며, 자아개념과 일관된 정보에 주목하는 경향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거에 의하면 자신이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 경우 실제로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기제로 자기 일관성 동기(self-consistency motive)와 자아존중 동기(self-esteem motive)가 있다(Rosenberg, 1979). 자기 일관성 동기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때조차도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증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반면, 자아존중 동기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아존중 동기와 자기 일관성 동기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탈적 자아개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은 경우, 자기 일관성 동기는 비행 동기화 효과가 있는 반면 자아존중 동기는 비행 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신을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만약 자신의 비행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비난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후 오히려 비행행동은 줄이고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Braithwaite, 1989; Grasmick, 1993).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최소화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구조화한다는 자아강화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비행행동의 단절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탈적 자아개념으로 인해 이후 비행행동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행경험으로 인해 이후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인의 자아개념은 안정적인 성향이 있지만,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면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게 된다(Burke, 2006). 자아개념은 반영된 평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비행행동으로 인해 주위에서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일탈적 자아개념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비행경험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행동 또는 일탈행동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은 자신의 행동이 비행행동 또는 문제행동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비행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수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음주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그것을 비행이라고 하니까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런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Hirschfield(2008)는 구속경험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라고 인식되는 대도시 빈민지역에서는 구속경험이 부정적 낙인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자아개념이나 사회적 관계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것은 비행경험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에 대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 또는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이 일탈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전의 비행수준 및 일탈적 자아개념을 각각 통제된 후에도 비행수준이 이후의 일탈적 자아개념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탈적 자아개념이 이후의 비행행동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는 2003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3,449명 (남: 1,725명, 여: 1,724명)을 수집하였다. 2차년도에 3,211명, 3차년도에 3,123명, 4차년도에 3,121명이 조사에 응하여서 비교적 높은 표본 유지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종단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1차년도(2003년)부터 4차년도(2006년)까지의 4개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변인

일탈적 자아개념은 자신을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평가(self-appraisal)와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탈적 자아의 자기평가는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의 2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일탈적 자아의 반영된 평가는 '주위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의 2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에서 수집한 측정치가 모두 하나의 척도상에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일탈적 자아개념의 두 요인의 측정치를 각 측정시기별로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평가의 경우 네 시점의 순서대로 .78, .84, .83, .85였으며, 반영된 평가의 경우 .88, .93, .93, .94였다. 전체 4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 .92, .92, .92였다.

응답자의 비행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뺑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 시키기의 11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별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의 빈도에 대해 표준화 점수를 구하였으며, 각 비행유형별로 경험 빈도의 이상점(outlier)을 조정하기 위해 표준점수 3 이상의 값은 모두 3으로 고정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각 비행유형별 경험빈도의 표준점수의 평균을 비행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설정하였다. 자기회귀 모델은 t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t-1$)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설정된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은 이러한 자기회귀 모델을 다변량 모델로 확장시켜서 두 변인간의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홍세희 · 박민선 · 김원정, 2007). 따라서 각각 동일한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autoregressive) 계수와 한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cross-lagged) 계수를 한 모델에서 통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개인들의 평균적 발달정도를 파악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달리 각 시기별 변화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모델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표변수로 일탈적 자아개념의 자기평가와 반영된 평가의 두 요인을 사용하였다. 비행행동은 측정변수로 모델에 투입되었다. [그림 2]에서 잠재변수 1, 2, 3, 4는 각각 측정 시점 1, 2, 3, 4를 의미하며, A, B, C, D는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하여 적합 모델을 선정하였다. 모델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이 활용되었는데, 이것은 비교하는 두 모델이 내포된(nested) 관계일 때 두 모델의 자유도 차이에서 χ^2 차이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방법이다(Bollen, 1989). χ^2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델 중에서 자유도가 큰 모델이 더 적합한 모델이 된다.

한편 적합한 모델은 χ^2 값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 값은 표본수에 민감하다. 만약 표본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검정력이 증가하면, χ^2 값은 유의미한 수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Kline, 2005; Schumacker & Lomax, 1996). 따라서 검증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함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각 모델의 전반적 적합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일 때, TLI, CFI, NFI의 값은 .90 이상일 때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결측치 처리과정 없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나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rbuckle, 1996). 모델의 검증은 AMOS 7.0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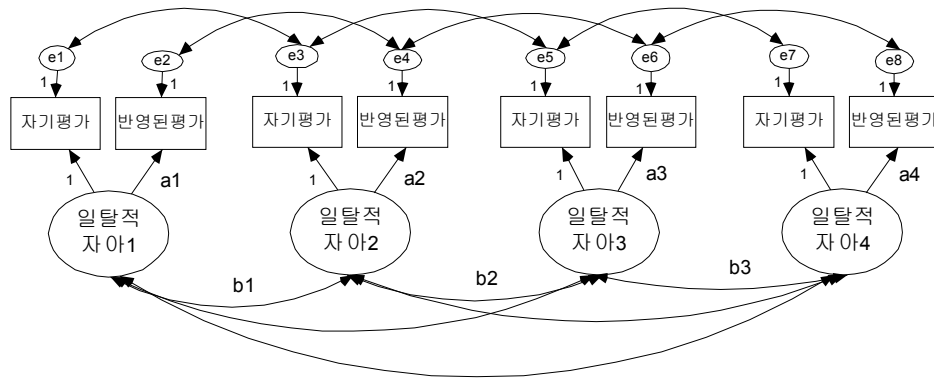
4. 연구모델의 검증

연구 모델의 검증은 측정모델의 검증과 구조모델의 검증을 구분하여 2단계로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검증을 위해 설정한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모델의 검증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위해 [그림 1]과 같이 일탈적 자아개념의 측정모델을 설정하였다. 비행행동은 측정변수로 모델에 투입하였으므로 측정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종단연구에서 반복변수를 잠재변수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확보되어야 한다(Taris, 2002). 즉 측정동일성 검증이란 각 시점에서 잠재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 검증하는 것으로, 동일문항의 요인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추정되도록 고정된 모델과 고정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다. 요인계수는 측정변

수와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요인계수가 같다는 것은 측정변수들이 같은 잠재변수를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일탈적 자아개념의 측정모델

측정모델 0: [그림 1]의 측정모델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로서, 모델비교를 위한 기저모델로 사용되었다. 동일한 측정변수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할 경우 변수 간에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Bollen, 1989)에 기초하여 일탈적 자아개념 측정변수의 오차 간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다(예: e1과 e3, e2와 e4).

측정모델 1: 일탈적 자아개념에 대한 동일한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각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a_1=a_2=a_3=a_4$). 측정동일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각 시점의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으로 인한 모델의 χ^2 값의 증가가 기저모델(측정모델 0)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측정모델 2: 측정모델 1의 동일화 제약에 추가적으로, 각 시점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접 시점 간의 일탈적 자아개념의 공변량이 동일하도록 제약하였다($b_1=b_2=b_3$).

2) 구조모델의 검증

구조모델 0: 측정모델의 검증에서 잠재변인인 일탈적 자아개념의 시간 경과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으며($a_1=a_2=a_3=a_4$), 각 시점에서 동일한 측정변인에 대한 오차 간에 공변량을 허용하였다(예: e_1 과 e_3 , e_2 와 e_4 사이). 그리고 내생변수의 오차 간의 상관을 설정하여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관계를 설정하였다(예: d_1 과 d_2). 일탈적 자아개념은 잠재변수이므로 자기평가를 일탈적 자아개념의 준거변수로 삼아 각 시점에서 그 요인계수 값을 1로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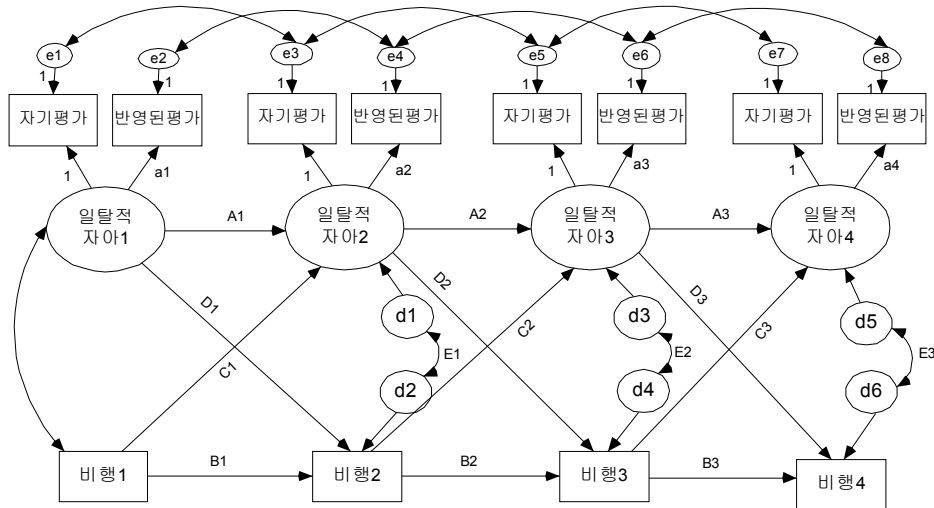
구조모델 1: 구조모델 0에 추가적으로 일탈적 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델이다($A_1=A_2=A_3$).

구조모델 2: 구조모델 0에 추가적으로 비행행동의 자기회귀 계수가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델이다($B_1=B_2=B_3$).

구조모델 3: 구조모델 0에 추가적으로 비행행동이 이후 시점의 일탈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델이다($C_1=C_2=C_3$).

구조모델 4: 구조모델 0에 추가적으로 일탈적 자아개념이 이후 시점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델이다($D_1=D_2=D_3$).

구조모델 5: 구조모델 1에서 구조모델 4까지의 모델비교를 통해 자유도의 증가에 비해 χ^2 값의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이다.



[그림 2]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상호상관

〈표 1〉에 각 측정 시기마다 모든 관측변수들의 상호상관을 제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은 측정시기 내에서 뿐만 아니라 측정시기 간에도 유의미하였다(all $p < .001$). 더욱이 이전의 비행행동은 이후의 일탈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상관 결과는 상호적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표 1> 측정변수들의 상호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비행1	—											
2. 비행2	.497	—										
3. 비행3	.306	.470	—									
4. 비행4	.306	.366	.462	—								
5. 자기평가1	.329	.254	.198	.183	—							
6. 자기평가2	.270	.307	.200	.197	.381	—						
7. 자기평가3	.210	.244	.306	.251	.368	.398	—					
8. 자기평가4	.169	.152	.156	.247	.273	.305	.398	—				
9. 반영된평가1	.371	.286	.211	.189	.725	.369	.330	.248	—			
10. 반영된평가2	.295	.347	.228	.228	.361	.778	.371	.292	.389	—		
11. 반영된평가3	.219	.242	.329	.270	.362	.366	.790	.384	.374	.407	—	
12. 반영된평가4	.201	.219	.225	.331	.279	.312	.397	.789	.298	.342	.446	—

※ 모든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변수이름에서 숫자 1~4는 측정회기를 의미함.

2. 측정모델의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그림 1]의 기저모델(측정모델 0)의 전반적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1.179$, $df=8$, $p<.001$; $TLI=.977$, $RMSEA=.052$). 측정모델 0과 측정모델 1의 비교를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델 1은 측정모델 0에 비해 자유도가 3 증가하였고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증가량은 4.647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TLI와 RMSEA값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측정모델 1과 측정모델 2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델 1에 비해 측정모델 2가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2)=2.371$, all $p>.05$. 따라서 일탈적 자아개념에 대한 측정불변성이 충족되어서 측정모델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모델에서 산출된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2> 일탈적 자아개념 측정모델의 적합도 비교

Model	χ^2	df	$\Delta \chi^2$	Δdf	NFI	TLI	CFI	RMSEA
측정모델 0	81.179	8	-	-	.994	.977	.995	.052
측정모델 1	85.626	11	4.447 ns	3	.994	.983	.995	.044
측정모델 2	87.997	13	2.371 ns	2	.994	.985	.995	.041

※ 측정모델 2가 최종 적합 측정모델임. ns=not significant.

3. 구조모델의 검증

측정모델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모델의 검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회귀 계수 및 교차지연 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고,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인과적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그림 2]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자료에 적용시킨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의 적합성을 나타냈다; $\chi^2(39)=549.825$, $p<.001$; TLI=.943, RMSEA=.062. 다음으로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전혀 가하지 않은 모델(그림 2)을 기저모델(baseline model)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5개의 경쟁모델들과 모델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모델 0에 비해 모델 1(일탈적 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계수 동일화)과 모델 3(비행행동→일탈적 자아의 교차지연 계수 동일화)은 자유도의 증가에 비해 χ^2 값의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델 2(비행행동의 자기회귀 계수 동일화)와 모델 4(일탈적 자아→비행행동의 교차지연 계수 동일화)는 경로 동일화 제약으로 인해 모델 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비행행동의 자기회귀 계수 및 일탈적 자아→비행행동의 교차지연 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모델 5에서는 일탈적 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계수 및 비행행동→일탈적 자아의 교차지연 계수에 대해서만 동일화 제약을 가하여 모델 0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모델 0에 비해 모델 5가 더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chi^2(4)=5.019$, $p>.05$. 따라서 구조모델 5를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에 대한 상호적 인과관계의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 모델에서 얻은 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구조모델의 적합도 검증

Model	동일화 제약	χ^2	df	$\Delta \chi^2$	Δdf	NFI	TLI	CFI	RMSEA
구조모델 0	-	549.825	39	-	-	.970	.943	.972	.062
구조모델 1	A	551.338	41	1.513 ns	2	.970	.946	.972	.060
구조모델 2	B	597.731	41	47.906 ***	2	.967	.941	.969	.063
구조모델 3	C	554.695	41	4.870 ns	2	.969	.946	.972	.060
구조모델 4	D	563.861	41	14.036 ***	2	.969	.945	.971	.061
구조모델 5	A, C	554.844	43	5.019 ns	4	.969	.949	.972	.059

※ 모델 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에서 구조모델 1~5는 구조모델 0과 비교하였음. 모델 5가 최종 적합 모델임. 동일화 제약의 A~D는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음.

*** $p < .001$, ns=not significant.

<표 4>의 교차지연 계수 추정치에 의하면 중2에서 고2에 이르기까지 일탈적 자아 개념은 이후의 비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비행행동은 이후의 일탈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all $p < .001$). 단 비행행동→일탈적 자아개념의 교차지연 효과의 크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데 반해, 일탈적 자아개념→비행행동의 교차지연 효과는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더 나아가 일탈적 자아개념→비행행동의 교차지연 효과와 비행행동→일탈적 자아개념의 교차지연 효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추정치의 임계치를 비교한 결과, 비행행동→일탈적 자아개념의 교차지연 효과가 그 반대의 효과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all $p < .001$).

다음으로 안정성 계수를 의미하는 자기회귀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근접 시점의 일탈적 자아개념 (.457)과 비행행동(.437) 간에 매우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2에서 고2에 이르는 동안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상대적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일탈적 자아개념의 자기회귀 효과의 크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데 반해 비행행동의 자기회귀 효과는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 최종 적합 구조모델(구조모델 5)의 추정치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G.R.	표준화 추정치
일탈적 자아 2 ← 일탈적자아1	.474	.011	41.517	.457***
일탈적 자아3 ← 일탈적자아2	.474	.011	41.517	.466***
일탈적 자아4 ← 일탈적자아3	.474	.011	41.517	.473***
비행행동2 ← 비행행동1	.415	.015	27.011	.448***
비행행동3 ← 비행행동2	.365	.013	28.456	.471***
비행행동4 ← 비행행동3	.561	.021	26.264	.437***
일탈적 자아2 ← 비행행동1	.461	.043	10.820	.127***
일탈적 자아3 ← 비행행동2	.461	.043	10.820	.116***
일탈적 자아4 ← 비행행동3	.461	.043	10.820	.090***
비행행동2 ← 일탈적자아1	.037	.005	7.806	.139***
비행행동3 ← 일탈적자아2	.018	.003	5.320	.092***
비행행동4 ← 일탈적자아3	.035	.004	8.054	.140***

***p<.001

V. 결론 및 논의

자아개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를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간주한 경향이 있다. 또한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는 매우 모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을 비행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비행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상정하고, 자아개념을 비행관련 자아개념(일탈적 자아개념)에 한정하여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은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

고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아개념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과의 관계가 여전히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 일탈적 자아개념은 비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의 비행수준이 다음 시점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일탈적 자아개념이 비행 유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일탈적 자아개념은 단지 비행경험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비행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tsueda(1992)에 의하면 부모, 교사,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규칙 위반자로 본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이후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영된 평가는 이전의 비행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이후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비행행동의 수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는 타인의 기대에 행동으로 부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 역시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후 비행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은 비행행동에 대해 자기낙인(self-labeling)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don(2004)에 의하면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는 긍정적 행동 보다는 부정적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즉 한 학생을 모범생으로 지각하면 그가 실제 규범적 행동을 할 가능성보다는 문제아로 지각함으로써 실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동원(2005) 및 Owens(1994)는 자아개념을 통한 비행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증진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의 최소화가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비행의 예방과 단절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일탈적 자아개념의 비행 유발 효과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아개념은 몇 가지 독립적 유형(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및 집합적 자아)으로 존재하는데, 행동의도를 형성할 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아 의미가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자아개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Brewer & Gardner, 1996; Stryker & Burke, 2000). 행동의도를 형성할 때 개인적 자아가 활성화되면 자

신의 고유한 태도나 흥미를 강조하는 반면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것은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더라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비행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행유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탈적 자아개념보다는 다른 유형의 자아개념이 활성화된다면 비행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가능성은 김수경(2008)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 “찍힌 아이들” 7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시도한 김수경(2008)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받은 학생들도 내면에 긍정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아들도 그 내면에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요소들을 가꾸어 나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이 높은 청소년들 또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비행을 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비행경험으로 인해 청소년의 일탈적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을 저지르고 난 후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당위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후의 비행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비행경험이 증가할수록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비행행동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경우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Swann 등(2007)의 주장과 일관된 것이다.

일탈적 자아개념은 비행 유발효과가 있다는 본 결과는 역설적으로는 일탈적 자아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비행단절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e.g., Giordano et al., 2002; Maruna et al., 2004)에 의하면 범죄 단절자들은 반복적 범죄자들에 비해 “나”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따라서 비행의 단절을 위해서 새 사람(changed person)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iordano 등(2002)은 비행단절을 위해서 정체성의 인지적 전환(cognitive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 역시 비행청소년의 비행단절을 위해서 그들의 일탈적 자아개념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탈적 자아개념의 재구성이 가능할까? 본 연구에서 검증된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는 비행의 단절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자아개념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아개념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Makkai와 Braithwaite(1993)의 연구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이 규범적 행동을 보였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칭찬하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개인의 내면적 품성을 칭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즉 ‘너는 착한 일을 했다’보다는 ‘너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이 그들의 규범적 자아개념을 증대시키는 인지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정서, 행동,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사고패턴을 확인하고 청소년이 이를 직면하여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인지적 재구조화는 어떤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해석을 유도하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파악하고 교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하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듣는가를 통해 발달한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Searcy, 2007), 친사회적 행동 체계를 갖춘 친구들과의 교류,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한 자존감의 증진, 긍정적 피드백의 제공 등이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의 인지적 재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근절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비행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석방 후 3년 이내에 재수감되었다는 미국의 통계자료(Langan & Levin, 2002) 및 연구대상 비행 청소년들 중 44%가 석방 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재범을 하였다는 국내 연구결과(서동혁 등, 2001)들을 통해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이전의 비행수준은 이후 시점의 비행에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 역시 비행을 한번 시작하면 단절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행행동 뿐만 아니라 일탈적 자아개념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지만(Burke, 2006; Stryker & Serpe, 1994), 동시에 비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일지라도 한번 형성되면 선택적 지각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Swann, 1983). 자아개념이 안정적이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자아개념의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개념이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한 Burke(2006)와

상반된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행경험은 자아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에서의 안정성이란 집단 내 개인의 비행수준 및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대적 위치(rank order)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Buist et al., 2004; Mason, 2001), 평균이 일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비행 및 일탈적 자아개념이 안정적이라는 본 결과는 이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후연구를 통해 개인내적(within-individual)인 수준에서도 비행행동 및 일탈적 자아개념이 유의미한 증감이 없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이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영향력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탈적 자아개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비행의 결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인과적 방향성을 비교했을 때 일탈적 자아개념은 비행의 결과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력하였다. 즉 상호간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행경험이 일탈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역의 효과보다 큰, 우월적(predominant)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결과는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역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고한 Rosenberg 등(1989)의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가 일탈적 자아개념에 초점을 둔 반면 Rosenberg 등(1989)은 구체적 내용이 배제된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반적 자아개념 및 특정 영역에 한정된 자아개념의 적용에 따라 청소년비행과 자아개념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탈적 자아개념과 비행의 상관은 상식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두 변인의 상관계수는 최대 .37에 불과하였다. 즉 비행수준이 실제 개인의 일탈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변량은 최대 14% 정도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비행청소년 또는 문제아로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 비행행동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비행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비행친구와 어울릴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이은주, 2008) 및 일탈적 자아개념이

이전의 비행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비행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비행행동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실제 비행행동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적 자아개념의 측정을 위해 문제아 및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질문하였을 뿐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문제아는 어떤 특성과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간에 문제아의 정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행동과 일탈적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의 크기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비행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일탈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 비행 이외에 부모요인, 비행친구요인 등 일탈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비행친구, 비행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이 비행과 자아개념의 조절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e.g., Bartusch & Matsueda, 1996; Rosenberg et al., 1989).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들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경(2008). 학교에서 “찍힌 아이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 15-24.
- 서동혁 · 정선주 · 손창호 · 김원식 · 고승희 · 함봉진 · 조성진 · 김영기 · 이중재(2001).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3호, pp. 463-476.
- 이동원(2004).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교정연구*, 제24권, pp. 39-68.
- 이동원(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pp. 357-383.
- 이은주(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pp. 149-168.
- 이은주(2004).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141-165.
- 이은주(2008).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 243-267.
- 정익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35-76.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1권, pp. 133-159.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홍세희 · 박민선 ·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1호, pp. 129-143.
- Arbuckle, J. L.(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Marcoulides & R.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EA.

- Bartusch, D. J. & Matsueda, R. L.(1996). Gender, reflected appraisals, and labeling: A cross-group test of an interactionist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Vol. 75, pp. 145-176.
- Baumeister, R. F., Bushman, B., & Campbell, W.(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1, pp. 26-2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 Vohs, K.(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 4 No. 1, pp. 1-44.
- Baumeister, R. F., Campbell, J., Krueger, J., & Vohs, K.(2005). Exploding the self-esteem myth. *Scientific American*, Vol. 292, pp. 84-92.
- Bollen, K.(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rewer, M.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1 No. 1, pp. 83-93.
- Browne, M.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 J.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ke, P. J.(2006). Identity chang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9 No. 1, pp. 81-96.
- Chubb, N., Fertman, C., & Ross, J.(1997). Adolesc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Vol. 32 No. 125, pp. 113-129.
- Donnellan, M., Trzesniewski, K., Robin, R., Moffit, T.,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4, 328-335.
- Felson, R. B.(1985). Reflected appraisal and the development of self. *Social Psychology*

- Quarterly*, Vol. 48, pp. 71-78.
- Gecas, V. & Schwalbe, M.(1983). Beyond the looking-glass self: Social structure and efficacy-based 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6 No. 2, pp. 77-88.
- Giordano, P. C., Cernkovich, S. A. & Rudolph, J. L.(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7 No. 4, pp. 990-1064.
- Harter, S.(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553-617). New York: Wiley.
- Hirschfield, P. J.(2008).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delinquent labels in disadvantaged urban communities, *Sociological Forum*, Vol. 23 No. 3, pp. 575-601.
- Hubbard, D. J.(2006). Should we be targeting self-esteem in treatment for offenders: Do gender and race matter in whether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44 No. 1, pp. 39-57.
- Jaret, C., Reitzes, D. C., & Shapkina, N.(2005). Reflected appraisals and self-esteem,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48 No. 3, pp. 403-419.
- Kaplan, H. B.(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plan, H. B.(1986). *Social psychology of self-referent behavior*. New York: Plenum.
- Kinch, J. W.(1963).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8, pp. 481-486.
- Kirkpatrick, L. A. & Ellis, B.(2001).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self-evaluation and self-esteem. In G. Fletcher & M. Clark(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Interpersonal processes*(pp. 411-436). Oxford, England: Blackwell.
- Kirkpatrick, L. A., Waugh, C. E., Valencia, A. & Webster, G. D.(2002).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5, pp. 756-767.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ngan, P. A. and Levin, D. J.(2002).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94 (NCJ 193427)*.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Madon, S.(2004).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s an intrafamily dynamic.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8 No. 3*, pp. 459-469.
- Makkai, T. and Braithwaite, J.(1993). Praise, pride and corporate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1*, pp. 73-91.
- Marsh, H. & Craven, R.(2006). Reciprocal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formance from a mutidimensional perspective: Beyond seductive pleasure and unidimensional perspectiv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1 No. 2*, pp. 133-163.
- Maruna, S., LeBel, T., Mitchell, N., & Naples, M.(2004). Pygmalion in the reintegration process: Desistance from crime through the looking glass. *Psychology, Crime, and Law, Vol. 10 No. 3*, pp. 271-281.
- Mason, W. A.(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1*, pp. 83-102.
- Matsueda, R.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7 No. 6*, pp. 1577-1611.
- Owens, T. 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pp. 391-407.
- Rigby, K. & Slee, P.(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3*, pp. 33-42.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F., & Rosenberg, M.(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No. 3*, pp. 279-291.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6, pp. 1004-1018.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No. 1, pp. 141-156.
- Salmivalli, C., Kaukiainen, L., Kaistaniemi, L., & Lagerspetz, K. (1999). Self-evaluated self-esteem, peer-evaluated self-esteem and defensive egotism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situations. *Personality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Vol. 25, pp. 1268-1278.
- Scheff, T. J. & Fearon, D. S. (2004). Cognition and emotion? The dead end in self-esteem research.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 34, pp. 73-91.
- Schumacker, R. & Lomax, R.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Jersey: Erlbaum.
- Searcy, Y. D. (2007). Placing the horse in front of the wagon: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24 No. 2, pp. 121-131.
- Stryker, S. & Burke, P. (200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 pp. 284-297.
- Stryker, S. & Serpe, R. T. (1994). Identity salience and psychological centrality: Equivalent, overlapping, or complementary concep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7 No. 1, pp. 16-35.
- Sutherland, I. & Shepard, J. (2002). A personality-based model of adolescent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2, pp. 433-441.
- Swann, W. B. (1983). Self-verification: Bringing social reality into harmony with the self. In J. Suls &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2, pp. 33-66. Hillsdale, NJ: Erlbaum.
- Swann, W. B.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pp. 1038-1051.

- Swann, W. B., Jr., Chang-Schneider, C., & Larsen McClarty, K.(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pp. 84-94.
- Taris, T.(2002). *A Primer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ousands Oaks, CA: Sage.
- Valentine, J. C., DuBois, D. L., & Cooper, H.(2004). The relation between self-belief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9, pp. 111-133.
- Webster, G. D. & Kirkpatrick, L. A.(2006). Behavioral and self-reported aggression as a function of domain-specific self-esteem. *Aggressive Behavior*, Vol. 32, pp. 17-27.

ABSTRACT

The Reciprocal Effects of Delinquent Behaviors and Deviant Self-Concepts

Lee, Eun-Ju* · Chung, Ick-Joong**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whether deviant self-concept and delinquent behaviors are mutually reinforcing, each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other.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tudy was derived from eighth graders who were followed for 4 yea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ior deviant self-concept and delinquent behaviors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subsequent deviant self-concept and delinquent behaviors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elucidated the reciprocal effects of deviant self-concept and delinquent behaviors. Furthermore, delinquency had the greater cross-lagged effect on deviant self-concept over an 1-year period than vice versa. The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prevention from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delinquency, self-concept, deviant self-concept, reciprocal effects

투고일 : 3월 11일, 심사일 : 4월 20일, 심사완료일 : 4월 20일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